

방주광학 등 협회 회원사 5개사 수출탑 수상

제46회 무역의 날 행사 이모저모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연말까지 3620억달러로 전년도 대비 -14.2%를 나타냈지만 이 같은 감소폭은 주요 수출국보다 작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순위는 러시아,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11월 30일 무역업계 기업인과 근로자, 정부와 수출유관기관 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1504개 업체가 수출탑을 수상했고 87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한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원사에서는 방주광학, 위오, 태진이오텍, 한빛레이저, 이오시스템 등이 자랑스러운 수출역군에 이름을 올렸다.

취재 | 박지연 기자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업계 기업인과 근로자, 정부와 수출유관기관 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특히 지난 2008년 하반기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세계교역이 급속히 위축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이 상대적으로 선전해 세계 수출랭킹 10위권 진입이라는 쾌거를 기록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무역으로 일군 '세계 수출 10강'

우리 수출은 지난해 연말까지 3620억달러로 전년도 대비 -14.2%를 나타냈지만 이 같은 감소폭은 주요 수출국보다 작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순위는 러시아,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10위권 진입의 결과를 낳았다.

무역의 날은 수출 1억달러를 처음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하기 위해 수출의 날로 최초 제정됐으며 1987년부터 수출입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무역의 날로 개칭됐다.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현대중공업이 150억달러 탑, 대우조선해양이 100억달러 탑, 현대오일뱅크

크가 50억달러 탑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1504개 업체가 100만달러에서 150억달러 탑에 이르기까지 여러 규모의 수출탑을 수상했다. 또한 어려운 수출환경을 극복하고 무역을 증진하거나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876명이 훈·포장 및 정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수출탑 수상업체는 전년도 1403개에 비해 101개사가 늘었고, 개인 포상자는 전년도 834명에 비해 42명이 늘었다. 지난해 수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탑 수상업체가 늘어난 것은 '수출액 달성 최초 연도'로 돼 있던 수출탑 대상업체 선정요건을 완화해 과거 수출탑 수상 자격을 갖췄으나 미처 신청을 못해 수상기회를 놓친 기업이 지난해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유지한 경우 신청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 사공일 회장은 "세계 경제가 1930년 대공황 이래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무역량이 줄어드는 여건 속에서 우리 무역업체가 세계무대에서 선전한 것은 1990년대 말 환란 이후 시작된 피땀 어린 구조조정 노력, 불굴의 시장 개척, 적극적인 상품개발 등에 힘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상품 수출은 대기업과 함께 그동안 다져온 높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고 덧붙였다.

1504개 업체 수출탑, 876명 개인 유공자 포상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현대중공업이 150억달러 수출탑을, 대우조선해양이 100억달러 수출탑을 받고, 현대오일뱅크가 50억달러 수출탑을 받는 등 모두 1504개 업체가 100만달러 이상의 수출탑을 받았다. 협회 회원사에서는 방주광학이 2천만달러 수출탑을 받는데 이어, 이오시스템과 태진이오텍이 1천만달러 수출탑을, 위오와 한빛레이저가 1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또한 강덕수 STX조선해양 회장과 권영수 LG디스플레이 대표 등이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유공자

| 잡 | 관 | 뉴 | 스 |

**지식경제부,
2014년 세계 무역 8강 진입 비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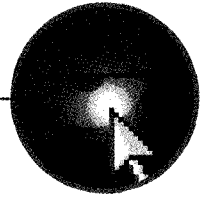
지식경제부는 46회 무역의 날을 맞아 '2014년 세계 무역 8강 진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출금융, 마케팅, 수출입물류 등 무역인프라의 체계적 확충을 통해 30%대에 고착화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40%대로 높이고 2014년까지 2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만개를 추가 육성함으로써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금융시스템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 지경부는 우선 올해 1000억원을 투입해 수출단계별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체계 구축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매입한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수출보험으로 부모(담보)하는 1조원 규모의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시 재무제표 등의 지표 외에 수출이행능력, R&D(연구개발) 역량 등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비은행권(중진공·무역기금·수보)의 수출금융 심사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녹색산업 및 신산업분야에 대한 수출보험 도입 및 지원도 확대돼 수출보험은 올해 3조원, 수출입은행은 2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등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 추진을 통해 향후 5년간 수출은 연 평균 12.5% 성장하는 한편, 수출품목도 지난해 8641개에서 2014년에는 1만2540개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87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된 가운데, 협회 회원사에서는 정광은 한국후지제록스 회장이 석탑산업훈장을, 방주광학의 정연훈 대표가 대통령상을, 한빛레이저의 김정묵 대표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 수출의 탑과 더불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방주광학의 정연훈 대표

**■ 2천만달러 수출탑
방주광학(주)**

방주광학(대표·정연훈)은 작년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2천만달러 수출탑과 정연훈 대표가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989년 11월 설립된 방주광학은 IT전자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써, 1996년부터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지털이미징, LG전자, 현대오트넷 등에 광학 및 IT전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2원화 생산체계를 구축 완료했다. 방주광학은 현재 중국 및 유럽 지역에 5개의 현지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본사 및 본사연구소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객사의 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업”을 모토로 현지 법인이 있는 국가의 선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연훈 대표는 “2006년부터 당사의 Mobile Phone Lens Assembly 제품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 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연간 20% 이상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번 무역의 날 수상에 자만하지 않고 세계 초일류기업의 반열에 오르는 그 날까지 전 임직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오시스템의 이원승 회장

**■ 1천만달러 수출탑
(주)이오시스템**

(주)이오시스템(대표·이원승)은 1979년 설립된 광학 제조 전문회사로서, 1984년 공식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국내 1위의 광학 제품 방위산업체이다. 임

직원의 절반가량이 부설연구소를 포함한 연구개발 인력이며, R&D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기울이고 있는 이 회사는 차세대 High-Tech 광학제품을 우리 군과 세계 각국의 군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은 2003년 이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9년까지 콜롬비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1500만달러의 실적을 거뒀고 2009년 하반기 및 2010년에는 약 2000만달러의 수출오더가 기대되어, 수출국의 확대와 매출액의 증가가 예상된다.

주요 수출품목은 Night Monocular Scope(80%), Thermal Weapon Sight(20%)과, 각 군의 소총부대의 총기류에 장착되거나 독립적으로 휴대되는 적외선 야간 투시경 및 열영상 투시경이다. 이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태국, 대만, 리비아,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중동 지역과 콜롬비아·페루 등의 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군을 상대로 치열한 판로확대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제품들이 해당지역의 군수품 수요에 매우 부합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독일의 우수 광학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 혁신, 전략적 Partnership 구축을 통해 더욱 Upgrade된 세계 최고의 광학전문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태진이오텍의 안태영 회장

**■ 1천만달러 수출탑
태진이오텍(주)**

태진이오텍(대표·안태영)은 1989년 설립된 태진정밀의 자회사로, 2007년 1월 법인이 분리되어 Plastic 및 Glass 비구면, 구면 렌즈와 Prism 등을 사출, 연마, 코팅하여 Phone

Camera, Digital Camera Lens module 뿐만 아니라 자동차 헤드램프 등에 사용되는 Light Guide ASS'Y, Dust Cover, Sensor Base 등을 생산하는

종합 광학부품 회사이다.

태진이오텍의 장점은 정밀 Plastic 부품의 금형을 제작하여 사출, 도장, UV/우레탄/EMI Coating, 인쇄, 조립 등 전 공정을 자체에서 해결할뿐만 아니라 축적된 기술력과 다양한 제조경험, 빠른 의사결정,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전자제품의 짧은 Life Cycle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숙련된 노하우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무기로 지난해 아시아의 중국과 대만 시장을 집중 공략한 결과 '천만달러 수출탑'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태진이오텍의 안태영 회장은 "천만달러 달성 수출의 영예는 회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 더욱 자부심이 생긴다"며 "회사 설립 후 지금까지 끊임없는 개선활동과 연구개발로 생산성, 품질 향상, 개발에서 양산까지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 위오의 서동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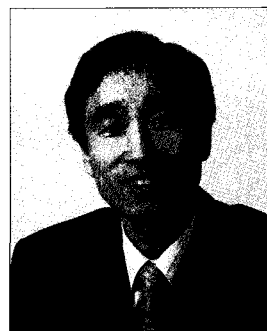
■100만달러 수출탑 (주)위오

2005년 설립된 위오(대표·서동수)는 1998년 비디오 도어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 전문업체인 MF전광의 자회사로 첨단 지능형 자동차 안전시스템용 카메라 렌즈 개발, 제조 및 수출하는

시장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혀 가고 있다. 세계 유명회사인 Volvo 자동차에 세계 최초로 CMOS기반 자동차 안전시스템용 카메라 렌즈 개발 및 공급을 시발로, 현재에는 미국 BIG3, 유럽 및 중국 Geely 완성 자동차 등 첨단 지능형 자동차 안전 시스템 Tier2 & Tier3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유럽 및 미국과 같은 광학 선진국을 비롯하여, 대만, 중국, 인도, 일본, 홍콩, 싱가포르,

포르, 필리핀 등으로써 글로벌 자동차 부품 생산기지가 있는 국가 위주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유럽, 싱가포르 및 대만 등 글로벌 정밀 의료기기 부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정밀 의료용 광학렌즈의 개발, 제조 및 수출도 병행하고 있다.

위오의 첨단 지능형 자동차 안전시스템용 카메라 렌즈 품목의 경우, 2003년부터 수출에 주력하여 공식적인 직접 수출액은 2005년 3만여달러에서 시작하여 전년에는 140만달러를 올렸으며 2009년 12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2008년 대비, 수출액이 다소 감소하여 110만달러를 달성했다. 국내시장 또한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 개발 및 공급 전문업체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전체 매출액 33억원을 달성한데 이어 2009년도 12월 기준 매출액을 30억원 달성했으며, 2010년을 제 2도약의 원년으로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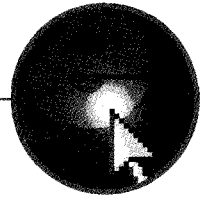
▶ 한빛레이저의 김정목 대표

■100만달러 수출탑 및 국무총리상 (주)한빛레이저

산업용 레이저 업체인 한빛레이저(대표·김정목)는 금번 100만달러 수출탑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빛레이저는 납입자본금 5억원으로 1997년 10월

한국원자력연구소 레이저 개발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했으며, 부설연구소 포함 20여명의 기술연구진과 생산라인의 직원 30여명이 재직 중에 있다. 현재 Mobile기기, 반도체, 자동차, FPD 산업 뿐만 아니라 원자력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최적의 레이저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시장에서 '국산 레이저 기술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있다.

한빛레이저의 글로벌 경쟁력은 국내유일의 고출력 산업용 YAG 레이저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에서 출발한다. 창업이후에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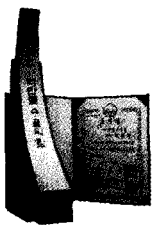
주력 제품인 Nd:YAG 레이저 장치의 원천기술 및 제조기술에 관련된 특허 등록 16건, 출원 3건으로 총 19건의 기술관련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03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04년과 2006년에는 과학기술부로부터 NET 마크를 획득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공략한 한빛레이저는 이때부터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9년 6월 중국 등에 214만달러의 실적을 거두었고 2009년 말 기준으로 300만달러의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500W급 펄스형 레이저 설비로서, 리튬이온배터리의 제조설비에서 핵심적인 장비이다. 현재 알루미늄소재의 각종 전자부품산업, 자동차부품산업 등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레이저의 핵심기반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분야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펄스형 레이저 신모델 출시를 기점으로 매출액이 급신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펄스형 레이저는 실시간으로 파형제어와 출력제어는 물론 최적의 가공기술 구현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김정목 대표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당사 제품의 성능에 대한 호평과 함께 긍정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새해부터는 수출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빛레이저는 앞으로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적극적인 제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석탑산업훈장

정광은 한국후지제록스(주) 회장

국내 컬러 디지털 복합기 시장점유율 1위의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는 1974년 일본 후지제록스



▶ 정광은 한국후지제록스 회장

와 한국동화산업(주)의 합작기업인 코리아제록스(주)로 출범했으며, 이후 1998년 일본 후지제록스에서 지분 100%를 인수함에 따라 후지제록스 그룹의 자회사로 새롭게 탄생했다.

특히 인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한국후지제록스 개발생산본부는 후지제록스 그룹의 주요 생산거점 중 하나로 1975년 국내 최초로 건식 보통용지 복사기를 생산하고 디지털 복합기를 국내 자체 개발·출시하는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후지제록스의 30년 수출역사를 담당하고 있다.

‘Leadership through Quality(최고의 품질을 통해 지켜가는 세계 정상)’라는 제록스 그룹의 기업철학에 따라 한국후지제록스는 생산과 품질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2년에는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인증규격인 ISO 9002를 획득했으며, 1998년에는 국내 최초로 자체 생산한 복사기를 미국에 직수출함으로써 한국후지제록스의 생산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우수한 생산력과 품질관리를 통해 한국후지제록스는 후지제록스 그룹 내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변기기 생산 핵심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한국후지제록스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발표하는 KCSI(한국산업고객만족도) 조사에서 8년 연속 복사기 부문 1위를 달성하며 고객만족 부문에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고객 지향적 서비스로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발표한 ‘2008 서비스 품질 혁신 촉진대회’에서도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고객 뿐 아니라 정부의 신뢰도까지 인정받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